

새로운 경제시스템 창출을 위한

# 경제주평

Weekly Economic Review

- 2018년 한국 경제 전망  
- 2%대 성장률 고착

# 목 차

## ■ 2018년 한국 경제 전망

- 2%대 성장률 고착

Executive Summary .....	i
1. 최근 국내 경제 동향 .....	1
2. 대외 경제 여건 .....	9
3. 2018년 한국 경제 전망 .....	13
4. 시사점 .....	18

□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            괄   : 주   원   이   사   대   우 (2072-6235, juwon@hri.co.kr)

□ 경 제 연 구 실   : 홍 준 표 연 구 위 원 (2072-6214, jphong@hri.co.kr)

                  정 민 연 구 위 원 (2072-6220, chungm@hri.co.kr )외 5명

## Executive Summary

### □ 2018년 한국 경제 전망 - 2% 대 성장률 고착

#### ■ 최근 국내 경제 동향

현재 국내 경기는 수출 호조를 이어가고 그 뒤를 이어 내수가 회복 국면에 진입하면서 경기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수출 호조에 일정 부분 기저효과가 작용하고 있으나 지역별 및 품목별 경기 균형을 가지는 점은 희망적이다. 또한 소비 부문이 지속적인 회복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향후 경기는 회복 국면에서 본격적인 확장 국면으로 전환 과정상에 위치할 것으로 보이나, 현 시점에서 본격적 경기 확장을 담보할 수 있는 질적인 개선여부는 불충분해 보인다. 가계부채의 경착륙, 건설투자 경기의 급랭, 수출의 G2 리스크, 체감경기과 지표 경기와의 괴리, 경제 심리의 비관론 확산 등 경기 회복세의 걸림돌이 되는 다양한 리스크들이 존재하고 있다.

#### ■ 대외 경제 여건

**2018년 세계경기는 신흥국을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2017년 완만한 회복세를 보였던 선진국은 2018년에는 성장세가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정부의 정책추진력 약화 등으로 인한 성장 정체될 보일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유로존은 소비를 중심으로 회복하나 브렉시트 협상, 남유럽 은행 리스크 등 불확실성이 상존한다. 일본은 소비 부진 및 정책여력 약화로 경기 회복이 지연될 전망이다. 한편, 신흥국은 2018년도에도 견조한 성장세가 이어져 세계 경제 회복을 주도할 전망이다. 다만, 중국은 주택가격 하락 및 금융리스크가 성장제약 요인으로 작용하여 성장세가 소폭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유가는 수급불일치 축소로 안정세를 유지할 전망이다.** 세계 경제의 완만한 회복에 따라 석유 수요의 회복이 2018년 국제유가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나 셰일오일 생산 확대 가능성 등으로 국제유가 상승폭은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

**주요국 환율 전망을 살펴보면, 트럼프 정책 추진력 부진 지속으로 달러화는 약보합세가 전망된다.** 유로화는 유로존 경기 회복 기대감으로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나, ECB 테이퍼링 속도 등에 따라 유로화 절상폭은 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엔화는 일본의 경기 부진 지속 및 완화적 통화정책 지속으로 약보합세가 전망된다. 위안화는 중국 정부의 금융리스크 통제, 부동산 규제 등으로 구조적 리스크가 완화되어 강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 ■ 2018년 한국 경제 전망

**2018년도 한국 경제는 성장률 자체로는 2017년보다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외여건 개선에도 불구하고 국내 경제는 건설투자의 하방 리스크 확대로 2% 중반 수준의 경제 성장률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소비는 2017년보다 다소 개선

될 전망이다. 소비 심리 개선, 정부의 일자리 중심 정책 기조 등은 민간 소비 개선에 긍정적이거나 가계부채 부담 증가, 부동산 경기 냉각에 따른 자산 효과 축소 등 소비 개선을 제약하는 요인들이 상존한다. 건설투자 증가율은 큰 폭으로 하락할 전망이다. 신규 수주 둔화, 허가 및 착공 면적 감소 등으로 건설 경기 사이클이 하강 국면에 진입할 전망이다.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 의지, SOC 예산 감소, 금리 인상 전망 등 정책 요인 역시 신규 건설 수요를 제약하면서 건설 투자 증가율은 0%대 진입이 예상된다. 설비투자의 증가율은 다소 둔화될 전망이다. 세계 경기가 개선되고 수출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설비 투자 확대가 지속되겠으나, 기저 효과로 증가세가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수출은 세계경기의 회복세로 인한 글로벌 수입 수요 확대, 국제 유가 상승 등으로 긍정적인 요인들이 존재하나 미국, 유럽 등 선진국 통화긴축 기조, 對중국 교역여건 악화 등 불확실성으로 2018년 수출 증가율은 다소 둔화될 전망이다. 경상수지는 2018년에 운송부문 및 여행수지 등의 악화로 서비스수지 적자가 늘어나며 2017년보다 감소한 680억 달러로 전망된다.

< 2018년 국내 경제 전망 >

구 분	2016년 연간	2017년			2018년(E)		
		상반기	하반기(E)	연간(E)	상반기	하반기	연간
경제성장률 (%)	2.8	2.8	2.6	2.7	2.4	2.6	2.5
민간소비 (%)	2.5	2.1	2.3	2.2	2.4	2.2	2.3
건설투자 (%)	10.7	9.4	2.1	5.5	△0.4	0.6	0.1
설비투자 (%)	△2.3	15.9	5.2	10.4	3.4	5.6	4.5
수출증가율 (%)	△5.9	15.7	12.0	13.8	5.0	6.0	5.5
실업률 (%)	3.7	4.1	3.5	3.8	4.0	3.6	3.8
소비자물가 (%)	1.0	2.0	2.2	2.1	2.1	1.9	2.0

주 : 실적치는 한국은행, 통계청, 무역협회, 2017년 하반기, 2018년 전망치는 현대경제연구원.

■ 시사점

저성장 고착화를 탈피하고 3%대 성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대응방안이 필요하다. **첫째**,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경제 역동성 복원, 안정적인 경제 성장 확보가 필요하다. **둘째**, 가계의 고용 안정 및 소득 증대와 동시에 소비심리 개선이 실제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만에 하나 소득 주도 성장 정책 실험의 실효성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에 대한 안정장치로 성장과 고용 창출의 주역인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기반 조성은 지속되어야 한다. **넷째**, 부동산 시장 안정 및 적정 수준의 SOC투자 규모 유지를 통해 건설 경기의 경착륙을 방지해야 한다. **다섯째**, 국내 수출 회복세를 이어가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주력 수출시장의 리스크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 **여섯째**, 생활물가의 과도한 상승을 방지하여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 **일곱째**, 일자리의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질적 개선 및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해 장기적인 고용 안정을 달성해야 한다.

## 1. 최근 국내 경제 동향

○ (불안한 경제성장) 2017년 2분기에 들어 경제성장률이 하락하는 가운데, 동행지수도 기준치를 상회하고 있으나 최근에 들어 하락 추세를 지속중

- 2017년 2분기 경제성장률은 전기대비 0.6%(전년동기대비 2.7%)로 1분기의 1.1%보다 0.5%p 하락

- 부문별로 보면 2분기 수출증가율이 전기대비  $\Delta 2.9\%$ 를 기록하였으며, 건설 투자증가율은 1분기 6.8%에서 2분기에 0.3%로 급락하면서 경제성장률 하락을 주도

- 다만 GDP(국내총생산)의 약 절반을 차지하는 민간소비증가율이 지난 1분기 전기대비 0.4%에서 2분기에 1.0%로 개선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

- 선행지수도 경기상승 신호를 지속중이나 동행 지수는 하락하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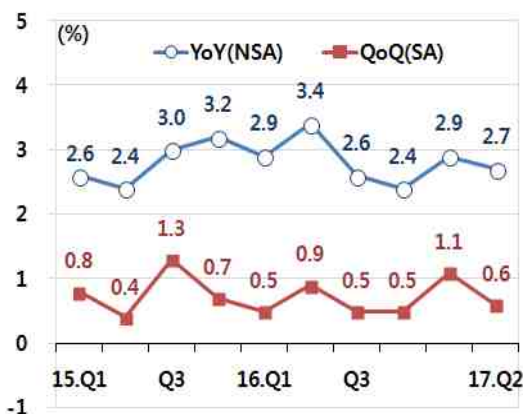
- 현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순환변동치는 4월을 정점으로 하락 추세에 있는 것으로 평가

- ※ 동행지수순환변동치: '17.4월 101.0p, 5월 100.8p, 6월 100.7p, 7월 100.7p, 8월 100.8p

- 한편 향후 경기의 방향성을 예고해 주는 선행지수순환변동치는 상승세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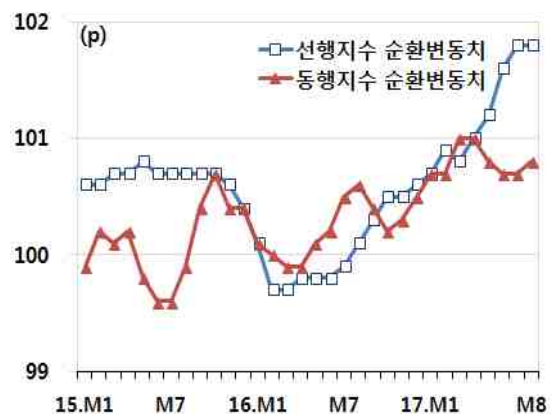
- ※ 선행지수순환변동치: '17.4월 101.0p, 5월 101.2p, 6월 101.6p, 7월 101.8p, 8월 101.8p

< 분기 경제성장률 >



자료 : 한국은행.

< 경기 동행 및 선행 지수 순환변동치 >



자료 : 통계청.

○ (소비 회복 가능성 점증) 소비 선행지표들의 개선이 지속되는 것으로 보아 향후 소비 부문은 회복 국면에 안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

- 최근에 들어 소비 부문의 선행지표로 간주할 수 있는 내구재 소비 증가세가 높아지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

· 내구재 소비가 추세적으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이 향후 소비 회복의 가능성을 높여주는 상황

※ 소매판매액지수 증가율(YoY): '17.4월 2.6%, 5월 1.4%, 6월 1.1%, 7월 3.5%, 8월 0.8%

※ 내구재소매판매액지수 증가율(YoY): '17.4월 5.8%, 5월 6.2%, 6월 1.6%, 7월 11.8%, 8월 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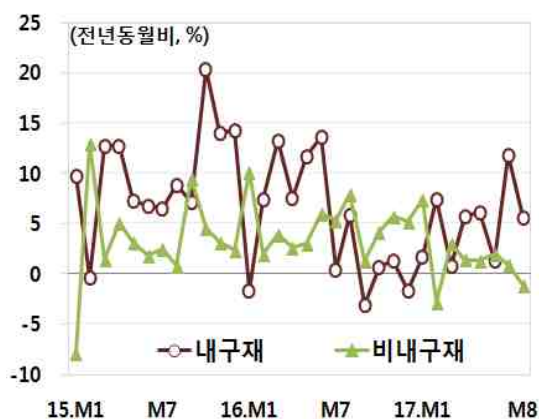
- 다만 최근에 들어 소비재수입물량 증가율이 혼조세를 보이고 있어 소비 회복을 확실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존재하나 추세적으로 증가세를 유지

· 최근 소비재수입액 자체는 증가세를 지속중이나 소비재 수입물량은 4월, 5월 그리고 7월 감소세를 기록

※ 소비재수입액 증가율(YoY): '17.4월 3.0%, 5월 6.6%, 6월 6.9%, 7월 12.4%, 8월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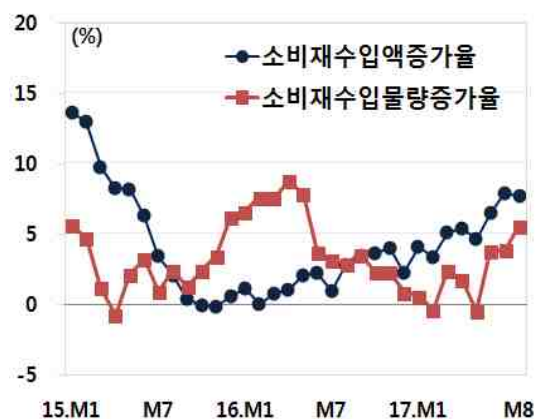
※ 소비재수입물량 증가율(YoY): '17.4월 △3.0%, 5월 △2.3%, 6월 10.0%, 7월 △0.9%, 8월 11.7%

< 상품군별 소매판매액지수 증가율 >



자료 : 통계청.

< 소비재 수입액 및 수입물량 증가율 >



자료 : 관세청.  
주 : 6개월 이동평균.

○ (설비투자 회복 강도 약화) 3분기에도 설비투자의 회복세가 지속중인 것으로 판단되나 그동안의 높은 증가세가 조정을 받을 것으로 예상

- 시장수요 확대에 따른 투자 확충 필요성의 증가가 설비투자의 회복세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였으나 최근 둔화

· 8월 전년동월대비 설비투자지수 증가율은 13.2%로 7월(25.1%)보다 하락

※ 설비투자지수 증가율(YoY): '17.4월 14.3%, 5월 20.0%, 6월 18.6%, 7월 25.1%, 8월 13.2%

· 다만 전기대비 기준으로 2개월 연속 마이너스(7월  $\Delta 5.1\%$   $\rightarrow$  8월  $\Delta 0.3\%$ )를 기록하는 모습이 다소 불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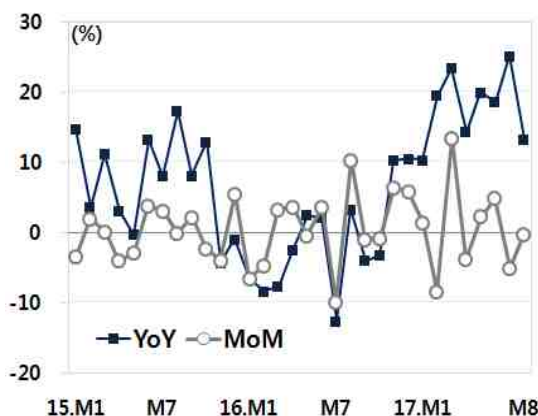
※ 설비투자지수 증가율(MoM): '17.4월  $\Delta 3.9\%$ , 5월 2.2%, 6월 4.8%, 7월  $\Delta 5.1\%$ , 8월  $\Delta 0.3\%$

- 설비투자 선행지표인 국내기계수주액과 자본재수입액 증가율도 최근 둔화되는 모습을 보임

· 국내기계수주액 증가율은 '16년 하반기 이후 상승세를 지속중이나 최근에 들어 상승세가 다소 둔화되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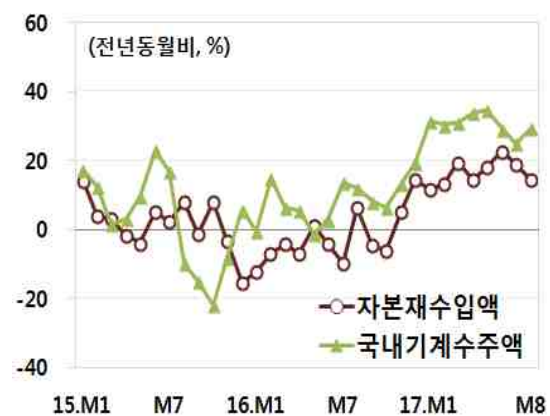
· 자본재수입액 증가율은 빠른 상승 추세를 지속중이나 최근 둔화되는 양상이 나타남

< 설비투자지수 증가율 >



자료 : 통계청.

< 국내기계수주액 및 자본재수입액 증가율 >



자료 : 통계청, 관세청.

주 : 국내기계수주액 증가율은 3개월 이동평균.

○ (건설투자 침체 우려) 민간과 공공 모두 경기 침체 국면으로의 진입 가능성이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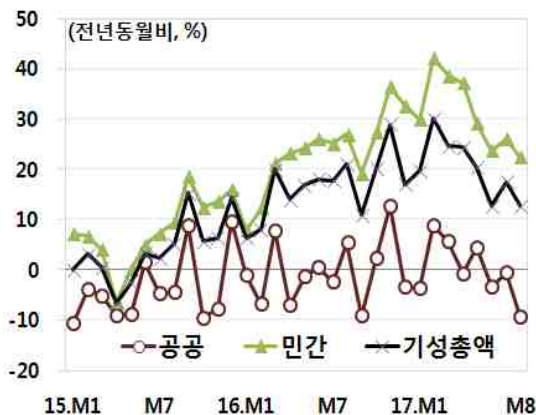
- 건설투자는 민간 부문이 호조를 지속중이나 공공 부문은 부진한 모습

- 8월 건설기성액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12.7%로 7월(17.5%)보다 하락
  - ※ 건설기성 증가율(YoY): '17.4월 24.4%, 5월 20.4%, 6월 12.7%, 7월 17.5%  
8월 12.7%
- 발주자별로는 민간 부문 수주가 8월중 22.5%의 증가율을 기록하며 전체 건설 경기를 견인하고 있으나 공공 부문 증가율은 △9.3%로 마이너스 기록
  - ※ 공공건설기성 증가율(YoY): '17.5월 4.4%, 6월 △3.4%, 7월 △0.6%,  
8월 △9.3%
  - ※ 민간건설기성 증가율(YoY): '17.5월 29.2%, 6월 23.8%, 7월 26.0%  
8월 22.5%

- 건설수주액(선행지표)은 민간 부문이 소폭 증가하면서 하락폭은 줄어들었지만 공공 부문 마이너스 지속, 민간 부문 수주 약화 등으로 향후 건설경기의 급랭 가능성을 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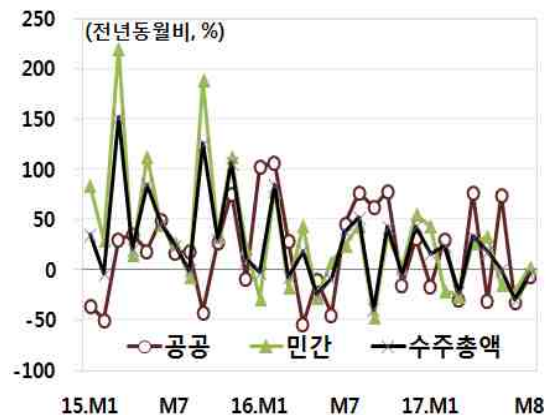
- 건설수주액 증가율(선행지표)은 8월중 △3.4%를 기록하면서 2개월 연속 마이너스 기록
  - ※ 건설수주 증가율(YoY): '17.4월 34.2%, 5월 18.3%, 6월 0.4%, 7월 △29.5%, 8월 △3.4%
  - ※ 공공건설수주 증가율(YoY): '17.5월 △30.1%, 6월 74.7%, 7월 △31.4%,  
8월 △6.2%
  - ※ 민간건설수주 증가율(YoY): '17.5월 33.3%, 6월 △14.7%, 7월 △22.2%,  
8월 2.7%

< 건설기성액 증가율 >



자료 : 통계청.

< 건설수주액 증가율 >



자료 : 통계청.



○ (수출 경기 호조) 수출 부문은 국내 수요 부문 중 가장 빠르게 회복되고 있으며, 하반기에 들어서도 주력수출시장의 수요 확대가 예상되어 수출경기의 확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

- 8월 수출은 지난해 11월 이후 10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올해 들어서는 8개월째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중

·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수출단가 개선과 시장 수요의 회복세로 '16년 11월 이후 증가세를 지속중

※ 수출액 증가율: '17.4월 23.8%, 5월 13.1%, 6월 13.4%, 7월 19.5%, 8월 17.3%

· 특히 그동안 부진했던 수출물량도 최근에는 세계경제의 회복 기조가 강화되면서 증가 추세를 확고히 유지

※ 수출물량 증가율: '17.4월 △8.4%, 5월 6.3%, 6월 2.0%, 7월 △1.3%, 8월 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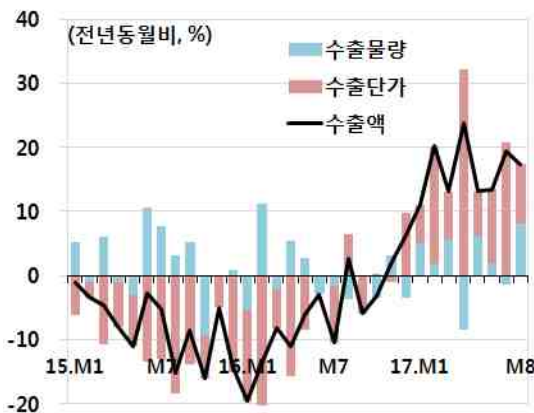
- 8월에 들어서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대 중국 수출도 호조를 보이면서, 4대 주력 수출 시장에 대한 수출이 모두 개선되는 모습

· 우리 수출의 약 25%를 차지하는 대 중국 수출이 그동안 미약한 증가세를 지속하였으나 8월에 들어 두 자릿수의 증가율을 기록

※ 대중 수출액 증가율: '17. 5월 7.3%, 6월 4.9%, 7월 6.5%, 8월 1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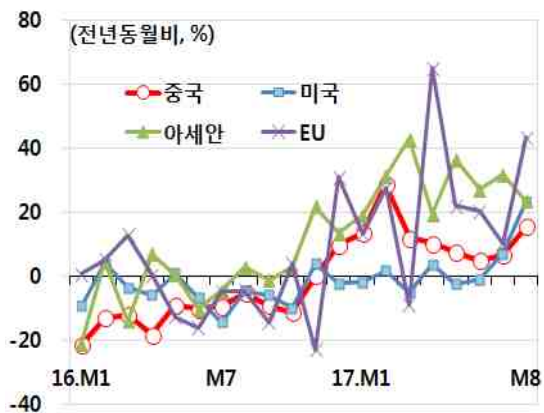
· 한편 8월중 대 아세안 수출증가율은 23.5%, 대 EU 수출증가율 43.1%, 대 미국 수출증가율 23.1% 등 다른 주력 시장에서도 수출 호조가 지속

< 월별 수출 증가율 >



자료 : 관세청, 산업통상자원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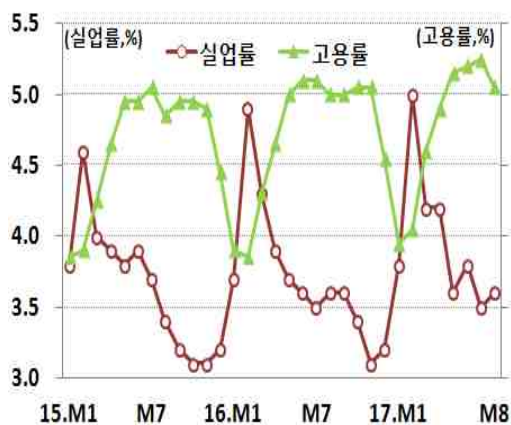
< 주요 지역별 수출증가율 >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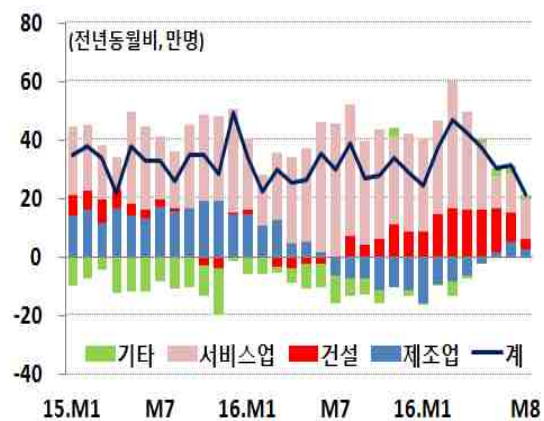
- (고용창출력의 한계 신호) 서비스업 부문의 신규취업자가 감소하면서 전체 취업자 증가는 20만명 수준으로 하락
  - 8월 실업률은 전년동월(‘16년 8월)과 동일한 수준이며 8월 고용률은 전년 동월보다 상승<sup>1)</sup>
    - 2017년 8월 실업률은 3.6%로 전년동월의 3.6%와 동일한 수준이며, 8월 고용률은 61.1%로 전년동월 수준(61.0%)보다 상승
  - 제조업 취업자가 증가세로 돌아섰으나 서비스업 신규취업자가 감소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8월에는 건설업 신규취업자도 감소
    - 취업자수 증가분(전년동월대비)은 연초 20만 명대에서 40만 명대를 상회하기도 하였으나 최근에는 20만 명대로 조정
    - 제조업의 취업자수 증가분은 6월 이후 소폭이나마 증가세로 전환
      - ※ 취업자 증감(YoY): ‘17.4월 42.4만명, 5월 37.5만명, 6월 30.1만명, 7월 31.3만명, 8월 21.2만명
      - ※ 제조업 취업자 증감: ‘17.4월 △6.2만명, 5월 △2.5만명, 6월 1.6만명, 7월 5.0만명, 8월 2.5만명
    - 한편 8월 기준 여타 산업의 취업자수 증가분은 서비스업 13.8만 명 증가, 건설업은 3.4만 명 증가

< 실업률 및 고용률 >



자료 : 통계청.

< 주요 산업별 취업자 증감 >



자료 : 통계청.

1) 실업률과 고용률은 계절성이 강하여 최근 추세보다는 전년동월과 비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 (서민 체감물가 급속 악화) 3분기에 들어 디플레이션 우려는 불식되었으나 생활물가 상승률이 과도하여 서민들의 체감경기 악화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

- 그동안 높은 수준을 보였던 수입물가와 생산자물가는 원자재 가격의 조정, 기저효과 등으로 상승률이 다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7월 이후 반등  
· 8월 수입물가상승률은 전년동월대비 9.0%로 7월의 5.5%보다 증가

※ 수입물가상승률(YoY): '17.4월 9.2%, 5월 4.1%, 6월 2.0%, 7월 5.5%, 8월 9.0%

· 8월 생산자물가상승률은 3.2%로 7월의 3.0%보다 증가

※ 생산자물가상승률(YoY): '17.4월 3.8%, 5월 3.4%, 6월 2.8%, 7월 3.0%, 8월 3.2%

- 기후적 요인, 계란 파동, 고유가 등의 공급측 물가 상승 요인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높은 수준을 보이는 가운데 서민들의 체감물가를 의미하는 생활물가가 급등하였으나 최근 둔화됨

· 9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전년동월대비 2.1%로 8월의 2.6%보다 감소

※ 소비자물가상승률(YoY): '17.4월 1.9%, 5월 2.0%, 6월 1.9%, 7월 2.2%, 8월 2.6%, 9월 2.1%

· 9월 생활물가<sup>2)</sup>상승률은 2.9%로 8월 3.7% 보다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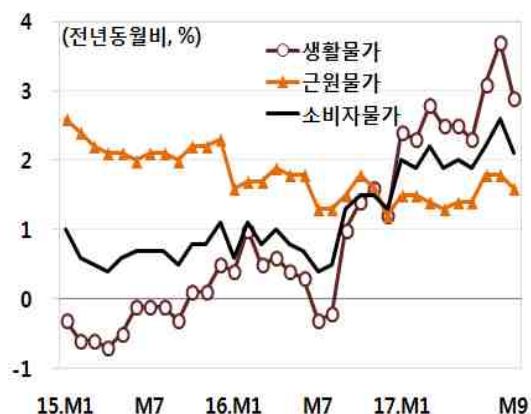
※ 생활물가상승률(YoY): '17.4월 2.5%, 5월 2.5%, 6월 2.3%, 7월 3.1%, 8월 3.7%, 9월 2.9%

< 생산자물가 및 수입물가 상승률 >



자료 : 한국은행.

< 근원물가 및 생활물가 상승률 >



자료 : 통계청.

2) 소비자물가 품목중 체감물가를 설명하기 위해 구입 빈도가 높고 지출비중이 높아 가격변동을 민감하게 느끼는 141개 품목으로 작성한 지수.

○ (낙관적 경제심리의 후퇴) 올해 들어 가계와 기업의 경제심리가 크게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최근에 들어 경기 상황에 대한 비관적 시각이 증가하는 모습

- 최근 가계의 미래에 대한 경기 전망 심리지수가 하락하는 현상이 발견

· 가계의 현재의 경기상황에 대한 체감 정도를 나타내는 현재경기판단CSI는 2017년 1월 50p대에서 현재 80p대 후반 수준

※ 현재경기판단CSI: '17.5월 82p, 6월 93p, 7월 96p, 8월 93p, 9월 87p

· 한편 향후경기전망CSI는 지난 5월까지 빠르게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이후 하락세

※ 향후경기전망CSI: '17.5월 111p, 6월 112p, 7월 109p, 8월 104p, 9월 96p

- 기업의 경제심리는 올해 상반기중 개선되는 추세를 보였으나 하반기에 들어 다소 부정적 시각이 확산되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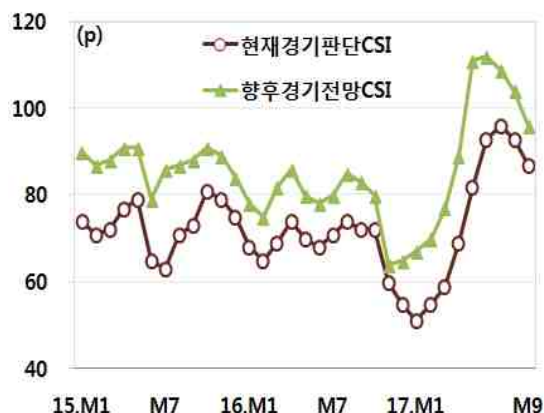
· 전경련 BSI(전망)는 6월을 정점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며, 여전히 기준치를 하회

※ 전경련 BSI: '17.5월 91.7p, 6월 99.1p, 7월 95.6p, 8월 92.4p, 9월 94.4p, 10월 92.3p

· 한은 BSI(업황전망)는 80p 내외에서 횡보하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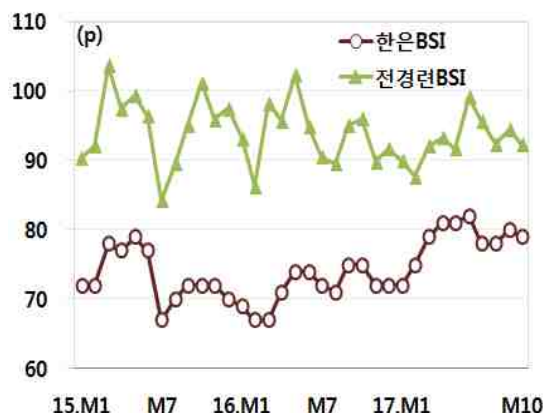
※ 한은 BSI: '17.5월 81p, 6월 82p, 7월 78p, 8월 78p, 9월 80p, 10월 79p

< 소비자심리지수(CCSI) >



자료 : 한국은행.

< 주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



자료 : 한국은행, 전국경제인연합회.

## 2. 대외 경제 여건

### ① 세계 경기 및 교역 : 완만한 회복세

○ (현황) 2017년에 선진국 및 신흥국 경기는 완만한 회복세, 세계 교역은 증가세

- 선진국 경기 : 유로존, 미국 등은 소비를 중심으로 회복이 강화되었으며 일본은 수출 호조로 회복
- 신흥국 경기 : 중국, 인도가 견조한 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며 러시아, 브라질 등 자원 수출국은 부진에서 탈피
- 세계 교역 : 세계 경기의 회복으로 세계 교역 확대

< 주요국 및 경제권역별 경제성장률 추이 >

(%)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1/4	2/4	3/4	4/4	연간	1/4	2/4
세계 경제성장률	3.4	-	-	-	-	3.2	-	-
선진국	2.1	-	-	-	-	1.7	-	-
미 국	2.6	0.6	2.2	2.8	1.8	1.6	1.2	3.0
유로지역	2.0	0.5	0.3	0.5	0.6	1.8	0.5	0.6
일 본	1.1	0.6	0.3	0.3	0.4	1.0	0.4	1.0
신흥개도국	4.3	-	-	-	-	4.3	-	-
중 국	6.9	6.7	6.7	6.7	6.8	6.7	6.9	6.9
인 도	8.0	9.1	7.9	7.5	7.0	7.1	6.1	5.7
브 라 질	△3.8	△5.4	△3.6	△2.9	△2.5	△3.6	△0.4	0.3
러 시 아	△2.8	△0.4	△0.5	△0.4	0.3	△0.2	0.5	2.5
ASEAN-5	4.9	-	-	-	-	4.9	-	-
세계 교역증가율	2.6	-	-	-	-	2.3	-	-

자료1) 연간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17년 7월).

2) 분기 (미국: 상무부 ; 일본: 내각부 ; 유로존: Eurostat ; 중국: 국가통계국 ; 인도: 인도중앙통계기구 ; 브라질: IBGE ; 러시아: 연방 주 통계청).

주1) 분기성장률 (미국: 전기대비연율 ; 일본: 전기대비 ; 유로존: 전기대비 ; 중국: 전년동기대비 ; 인도: 전년동기대비 ; 브라질: 전년동기대비 ; 러시아: 전년동기대비).

2) ASEAN-5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이 포함됨.

3) 세계 교역은 상품 및 서비스의 교역량 기준.

○ (전망) 2018년 세계경제는 신흥국을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

- 선진국 경기 : 미국은 성장세 정체, 유로존은 제한된 회복세, 일본은 경기 회복 지연 등을 보이면서 선진국 성장세는 다소 둔화될 전망
  - 미국은 정부의 정책 추진력 약화 등으로 인해 성장이 정체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
  - 유로존은 소비를 중심으로 회복이 예상되나 브렉시트 협상, 남유럽 은행 리스크 등 불확실성이 상존
  - 일본은 소비 부진 지속과 정책 여력 약화로 경기 회복이 지연될 전망
- 신흥국 경기 : 인도, 브라질을 중심으로 견조한 성장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중국의 성장세는 다소 둔화될 전망
  - 특히, 중국은 주택가격 하락, 금융리스크 등이 성장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여 성장세가 소폭 둔화될 전망
- 세계 교역 : 선진국 성장세 정체와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등으로 인한 불확실성 확대에 세계 교역 증가율은 소폭 둔화될 전망

< IMF의 주요국 및 경제권역별 경제성장률 전망 >

(%)

	2017년(E)			2018년(E)		
	2017. 7월 전망	2017. 4월 전망	2017. 1월 전망	2017. 7월 전망	2017. 4월 전망	2017. 1월 전망
<b>세계 경제성장률</b>	3.5	3.5	3.4	3.6	3.6	3.6
<b>선진국</b>	2.0	2.0	1.9	1.9	2.0	2.0
미 국	2.1	2.3	2.3	2.1	2.5	2.5
유로지역	1.9	1.7	1.6	1.7	1.6	1.6
일 본	1.3	1.2	0.8	0.6	0.6	0.5
<b>신흥개도국</b>	4.6	4.5	4.5	4.8	4.8	4.8
중 국	6.7	6.6	6.5	6.4	6.2	6.0
인 도	7.2	7.2	7.2	7.7	7.7	7.7
브 라 질	0.3	0.2	0.2	1.3	1.7	1.5
러 시 아	1.4	1.4	1.1	1.4	1.4	1.2
ASEAN-5	5.1	5.0	4.9	5.2	5.2	5.2
<b>세계 교역증가율</b>	4.0	3.8	3.8	3.9	3.9	4.1

자료 : IMF.

② 국제 유가 : 안정세 전망

○ (현황) 2017년 국제 유가는 연초 상승한 이후 점차 하락세

- 국제 유가는 연초 OPEC 감산 합의 이행으로 상승했으나 이후 생산 증가, 재고 누적 등으로 하락세를 보임
  - 1분기 국제유가는 OPEC 산유국 및 러시아 등 원유 감산 이행으로 상승했으나 2분기 이후 미국 원유 생산 증가, 재고 누적 등으로 하락
  - 또한 5월 이후 감산 면제국인 리비아·나이지리아 등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축소되면서 국제 유가의 하락압력으로 작용

○ (전망) 2018년 국제 유가는 수급불일치 축소로 안정세를 유지할 전망

- 2018년 국제 유가는 세계 경제의 완만한 회복에 힘입어 석유 수요 증가가 예상되나 셰일 오일 증가 등으로 상승폭은 제한
  - 세계 경제의 완만한 회복에 따른 석유 수요의 증가가 국제유가의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다만, 미국 석유 시추기 수 증가와 에너지 부문 투자 확대 등에 따라 셰일 오일 생산 증대가 예상됨에 따라 국제유가 상승폭은 제한될 전망

< WTI 유가 추이 및 전망 >

(달러/배럴)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E)		
			상반	하반(E)	연간(E)	상반	하반	연간
WTI	48.8	43.5	50.0	47.8	48.9	48.0	51.2	49.6

자료 : 한국석유공사, EIA(2017.8, STEO).

주1) 2017년 상반기까지는 한국석유공사의 유가 실적치.

2) 2017년 하반기부터는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의 유가 전망치.

③ 주요국 환율 : 달러화 약보합세, 유로화 강세 전망

○ (현황) 2017년 중 달러화는 약세, 유로화는 강세, 엔화는 강보합세 흐름

- 달러화 :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확대, 유로화 가치의 상승 등으로 달러화 가치 하락
  - 달러화 지수(주요국 통화대비)는 2017년 1월 101.2p에서 8월 93.2p로 하락
- 기타 주요국 통화 : 유로존 경기회복, ECB 테이퍼링 전망 등으로 유로화는 강세, 미국 정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한 안전자산 선호로 엔화는 강보합
  - 달러 대비 유로화 환율은 2017년 1월 0.942유로에서 8월 0.846유로로 하락
  - 달러 대비 엔화 환율은 2017년 1월 115.1엔에서 8월 109.7엔으로 하락

○ (전망) 2018년에 달러화는 약보합세, 유로화는 강세, 엔화는 약보합, 위안화는 강보합세 전망

- 달러화 : 트럼프 정책 추진력 부진 지속으로 달러화 가치는 약보합세 전망
- 유로화 : 유로존 회복 기대감으로 유로화는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나 ECB 테이퍼링 속도 조절 등에 따라 유로화 절상폭은 조정될 전망
- 엔화 : 일본의 경기 부진 지속 및 완화적 통화정책 지속으로 약보합세 전망
- 위안화 : 중국 정부의 금융리스크 통제, 부동산 규제 등으로 구조적 리스크가 완화되어 위안화는 강보합세 전망

< 국제투자은행의 주요국 환율 전망 >

구분	유로/달러			엔/달러			위안/달러		
	2017년	6개월후	12개월후	2017년	6개월후	12개월후	2017년	6개월후	12개월후
평균	0.90	0.84	0.83	111.9	113.7	110.3	6.81	6.70	6.73
최고	-	0.87	0.87	-	120.0	125.0	-	7.05	7.10
최저	-	0.81	0.79	-	109.0	107.0	-	6.47	6.50

자료 : 한국은행, Bloomberg.

주1) 2017년은 1월 2일 ~ 9월 25일간 평균.

주2) 6개월후 및 12개월후는 2017년 9월 전망치 기준.



### 3. 2018년 한국 경제 전망

#### ○ 2018년 한국 경제는 2017년에 비해 다소 둔화될 전망

##### - 경제성장률 : 하락세 지속 전망

- 성장률 자체로 본 경기 흐름은 기저효과로 인해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조금 개선되는 '상저하고' 예상

#### < 현대경제연구원의 2018년 경제성장률(전년동기대비) 전망 >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E)		
		상반	하반(E)	연간(E)	상반	하반	연간
경제성장률(%)	<b>2.8</b>	2.8	2.6	<b>2.7</b>	2.4	2.6	<b>2.5</b>

자료 : 실적치는 한국은행, 2017년 하반기, 2018년 전망치는 현대경제연구원.

##### - 민간소비 : 증가세 다소 개선 전망

- 가계의 소비심리가 개선되고 최저임금 인상 및 고용여건 개선 등 정부의 일자리 중심 정책 기조 등이 민간소비에 긍정적인 영향
- 또한 설비투자과 수출 증가세가 유지되고 복지제도 확충 등이 가계의 고용 및 소득 개선으로 이어진다면 민간소비의 개선세는 확대될 전망
- 다만, 가계부채 원리금 상환부담 확대, 부동산 경기 냉각으로 인한 자산효과 축소 등이 민간소비 확대를 제한
- 2018년 민간소비 증가율은 상반기 2.4%, 하반기 2.2%, 연간 2.3%로 전망

#### < 현대경제연구원의 2018년 민간소비 증가율(전년동기대비) 전망 >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E)		
		상반	하반(E)	연간(E)	상반	하반	연간
민간소비 증가율(%)	<b>2.5</b>	2.1	2.3	<b>2.2</b>	2.4	2.2	<b>2.3</b>

자료 : 실적치는 한국은행, 2017년 하반기, 2018년 전망치는 현대경제연구원.

- 건설투자 : 증가율 0%대 진입 예상

- 2014년 이후 건설수주를 견인한 민간 건축수주 증가세가 2017년 이후 둔화되고 건축허가 및 착공 면적이 2016년 하반기부터 감소세를 지속하는 등 건설 경기는 향후 하강 국면에 진입할 전망
-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 의지, SOC 예산 감소, 금리 인상 전망 등 정책 요인 역시 신규 건설 수요를 제약할 전망
- 2018년 건설투자 증가율은 상반기  $\Delta 0.4\%$ , 하반기 0.6%, 연간 0.1% 전망

< 현대경제연구원의 2018년 건설투자 증가율(전년동기대비) 전망 >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E)		
		상반	하반(E)	연간(E)	상반	하반	연간
건설투자 증가율(%)	10.7	9.4	2.1	5.5	$\Delta 0.4$	0.6	0.1

자료 : 실적치는 한국은행, 2017년 하반기, 2018년 전망치는 현대경제연구원.

- 설비투자 : 증가세 둔화 전망

- 세계 경기가 개선되고 수출 회복세가 지속되면서 2018년에도 설비 투자 확대가 지속될 전망이나, 기저 효과로 2017년보다는 증가세가 둔화될 전망
- 자본재 수입 증가, 국내 기계 수주 증가세 지속 역시 설비 투자 확대에 긍정적 요인
- 단, 설비 증설이 IT 산업에 집중되고 제조업 전반으로의 확산이 제한적인 점은 설비 투자 증가세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 가능
- 2018년 설비투자 증가율은 상반기 3.4%, 하반기 5.6%, 연간 4.5% 전망

< 현대경제연구원의 2018년 설비투자 증가율(전년동기대비) 전망 >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E)		
		상반	하반(E)	연간(E)	상반	하반	연간
설비투자 증가율(%)	$\Delta 2.3$	15.9	5.2	10.4	3.4	5.6	4.5

자료 : 실적치는 한국은행, 2017년 하반기, 2018년 전망치는 현대경제연구원.

- 수출입 : 경기 확장세 약화

- 수출은 세계경기의 회복세로 인한 글로벌 수입 수요 확대, 국제 유가 상승 등에 힘입어 증가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
- 다만 미국, 유럽 등 선진국 통화긴축 기조, 대 중국 교역여건 악화 등 불확실성은 2018년 수출 증대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여 증가폭은 다소 축소
- 수입은 원자재 가격 상승, 생산능력 확충을 위한 자본재 수요 증가, 민간소비 회복 등의 영향으로 증가세가 이어질 전망
- 무역수지는 유가 상승의 영향으로 수출보다 수입이 더 크게 증가함에 따라 2017년보다 감소한 약 851억 달러 전망
- 2018년 수출 증가율은 상반기 5.0%, 하반기 6.0%, 연간 5.5% 전망

- 경상수지 : 전년보다 감소 전망

- 운송부문 및 여행수지 등의 악화로 서비스수지 적자가 확대되면서 2018년 경상수지는 2017년보다 감소
- 2018년 경상수지는 상반기 330억 달러, 하반기 350억 달러, 연간 680억 달러 전망

< 현대경제연구원의 2018년 대외거래 전망 >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E)		
		상반	하반(E)	연간(E)	상반	하반	연간
경상수지(억 달러)	987	363	367	730	330	350	680
무역수지(억 달러)	892	449	493	942	413	438	851
수출증가율(%)	△5.9	15.7	12.0	13.8	5.0	6.0	5.5
수입증가율(%)	△6.9	21.3	10.5	15.6	7.5	9.6	8.5

자료 : 실적치는 한국은행, 한국무역협회, 2017년 하반기, 2018년 전망치는 현대경제연구원.

- 물가 : 상승폭 둔화 전망

-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소득 증가와 소비 심리 개선으로 소비가 확대되며 수요측 물가 상승 압력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 미국의 기준금리 추가 인상 및 자산축소 등으로 원화대비 달러 강세 가능성에 따라 수입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 농축수산물 및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2017년 물가 상승폭은 확대되었으나 2018년에는 원자재 가격 및 농축산물 가격 안정세로 공급측 물가 상승 압력이 다소 낮아질 전망
- 2018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상반기 2.1%, 하반기 1.9%, 연간 2.0%로 전망

< 현대경제연구원의 2018년 소비자물가(전년동기대비) 전망 >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E)		
		상반	하반(E)	연간(E)	상반	하반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1.0	2.0	2.2	2.1	2.1	1.9	2.0

자료 : 실적치는 통계청, 2017년 하반기, 2018년 전망치는 현대경제연구원.

- 고용 : 전년도 수준 예상

- 정부의 '일자리 추경' 집행에 따른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등이 고용시장을 개선하며 실업률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전망
- 그러나 2018년 경제성장률이 전년대비 소폭 둔화됨에 따라 고용시장 악화로 이어지며 실업률이 상승할 가능성 존재
- 특히 건설 경기 둔화로 건설업 부문 취업자가 감소하여 실업률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전망
- 2018년 실업률은 상반기 4.0%, 하반기 3.6%, 연간 3.8%로 전망

< 현대경제연구원의 2018년 고용 지표 전망 >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E)		
		상반	하반(E)	연간(E)	상반	하반	연간
실업률(%)	3.7	4.1	3.5	3.8	4.0	3.6	3.8

자료 : 실적치는 통계청, 2017년 하반기, 2018년 전망치는 현대경제연구원.

## &lt; 현대경제연구원의 2018년 한국 경제 전망표 (2017.9) &gt;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E)		
			상반	하반(E)	연간(E)	상반	하반	연간
국 민 계 정	경제성장률 (%)	2.8	2.8	2.6	2.7	2.4	2.6	2.5
	민간소비 (%)	2.5	2.1	2.3	2.2	2.4	2.2	2.3
	건설투자 (%)	10.7	9.4	2.1	5.5	△0.4	0.6	0.1
	설비투자 (%)	△2.3	15.9	5.2	10.4	3.4	5.6	4.5
대 외 거 래	경상수지 (억 달러)	987	363	367	730	330	350	680
	무역수지 (억 달러)	892	449	493	942	413	438	851
	수출증가율 (%)	△5.9	15.7	12.0	13.8	5.0	6.0	5.5
	수입증가율 (%)	△6.9	21.3	10.5	15.6	7.5	9.6	8.5
실업률 (%)		3.7	4.1	3.5	3.8	4.0	3.6	3.8
소비자물가상승률 (%)		1.0	2.0	2.2	2.1	2.1	1.9	2.0

#### 4. 시사점

○ (전망의 요약) 2018년도 한국 경제는 성장률 자체로는 2017년보다 낮아질 것으로 전망, 세계 경기의 완만한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국내 경제는 건설투자의 하방 리스크 확대 등으로 2% 중반 수준의 경제 성장률이 나타날 가능성이 존재

- 소비는 소비심리 개선, 정부 일자리 중심 정책 등으로 2017년에 비해 소폭 개선이 예상되지만, 하강 국면에 접어든 건설경기 사이클, 부동산 시장 냉각, SOC 예산 감소 등으로 건설투자 증가세는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일 전망
- 한편, 세계 경기 회복세로 수출 증가세는 유지되지만 사드 영향 등 수출 증대의 제약요인이 상존
- 수출 증가세 유지로 인해 설비투자도 증가세를 유지하나 기저효과로 증가폭은 둔화될 전망

○ (시사점) 저성장 고착화를 탈피하고 3% 성장에 진입하기 위한 대응 방안

첫째,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경제 역동성 복원, 안정적인 경제 성장 확보가 필요하다.

- 단기적 시각으로 경제 성장률 목표치에 집착하기 보다는 내외수의 불균형, 잠재 성장률 둔화 등 경제 내 불안 요인 관리를 통해 한국 경제의 구조적 취약점을 해결하는 중장기적 전략이 필요
- 지속적인 성장 잠재력 확충, 경제 구조 업그레이드 등 혁신성장을 통해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소통과 협력을 통한 민생 경제 안정화에 초점을 맞추어 더 불어 잘사는 경제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

둘째, 가계의 고용 안정 및 소득 증대와 동시에 소비심리 개선이 실제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 민간소비가 확대되기 위해서는 투자, 수출, 기업 실적 개선이 가계의 소득 증대로 이어지는 채널을 확대할 필요
  - 일자리의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일자리 질적 개선을 통해 근로소득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소득 경로를 강화해야 함
  - 또한 기업의 신규 채용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일할 능력이 있는 미취업자에 대해 정부의 일자리 탐색 지원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소비심리 개선이 실제 소비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가구 특성별 맞춤 소비진작 정책이 필요
  - 소비성향이 높고 소비여력이 있는 1인 가구와 소비규모가 큰 고소득층의 소비를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함
  - 소비성향은 높으나 소비여력이 적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생계와 소비를 위한 공적이전 정책을 확대하되, 소비 촉진책뿐만 아니라 소득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야 함

셋째, 만에 하나 소득 주도 성장 정책 실험의 실효성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에 대한 안정장치로 성장과 고용 창출의 주역인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기반 조성은 지속되어야 한다.

- 미래 성장 잠재력을 확보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기업들의 투자를 이끌어낼 정책도 함께 모색할 필요
- 특히 최근 세계 경기 회복세, 교역량 증가 등 대외 여건 개선이 기업 투자 증가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 마련을 통해 기업 투자 심리를 회복

넷째, 부동산 시장 안정 및 적정 수준의 SOC투자 규모 유지를 통해 건설 경기의 경착륙을 방지해야 한다.

- 현재 경제 성장의 상당 부분을 건설 투자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건설 투자 위축이 경제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의 급랭을 방지하고 시장 안정을 도모할 필요
- 또한 동시에 국가 경쟁력 제고 및 경기 안정화에 일조할 수 있도록 투자 방향성을 설정하여 적정 수준의 SOC 투자 규모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

다섯째, 국내 수출 회복세를 이어가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주력 수출시장의 리스크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

- 기존 주력산업의 수출 경쟁력 제고와 더불어 지속적으로 새로운 유망 수출 품목을 개발하고 인도, 동유럽, 아세안 등 성장 잠재력이 높은 신규 시장에 대한 공략을 강화
  - 근본적으로 기존 제품의 비가격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히트상품 개발에 주력해야 할 것임
-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에서의 한한령(限韓令)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고 있어, 중국 정부의 정책을 예의주시하면서 중국내 한국 기업에 대한 우호적 분위기 조성 노력해야 할 것임
  - 중간재, 자본재 중심으로 편중된 대중국 수출 구조를 개선하고 현재 추진 중인 일대일로(一帶一路) 사업에서 새로운 수출 기회를 모색할 필요
- 한편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에 대한 대응책은 마련하되 선제적인 대응은 자제하여 한·미간의 통상 현안이 이슈화되는 것을 경계해야 할 것임



여섯째, 생활물가의 과도한 상승을 방지하여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

- 향후 미국 금리인상 및 자산축소에 따른 원화대비 달러화 강세 가능성으로 수입물가 상승압력이 존재하며,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이 시차를 두고 최종 소비재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민간소비가 위축되고 서민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음
-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생활과 밀접한 품목의 수급안정 및 유통시스템 관리감독을 바탕으로 한 가격 안정이 필요
  - 원칙적으로 가격은 시장에서 결정되도록 하되, 담합이나 사재기와 같은 불공정 거래 행위 및 불합리한 유통구조를 적극적으로 감시해야 함
  - 생활과 밀접한 품목의 경우 정부의 조기 구매 계약을 확대하고 특정 생필품 가격이 과도하게 상승할 경우 수입물량을 증가시켜 수급안정을 확보
  - 또한 장마, 폭염 등 기후요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물가불안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수처리 시스템 등 기반시설 확충이 필요

일곱째, 일자리의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질적 개선 및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해 장기적인 고용 안정을 달성해야 한다.

- 성장잠재력을 확충하여 경제 전체의 일자리 창출력 회복에 주력해야 함
  - 고용 창출력이 높은 서비스 산업의 확대와 서비스업의 전반적인 경쟁력을 제고하여 일자리 창출력을 강화
  - 고용효과가 큰 고부가가치 산업 및 신성장동력 산업을 육성하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
- 민간 부문에서의 투자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 및 신규 일자리에 대한 세제 혜택을 바탕으로 민간부문에서의 일자리 창출을 유도

- 적극적인 고용시장 정책을 바탕으로 특정 부문에서의 일자리 급감을 완화하고, 일자리의 질적 개선을 통해 장기적인 고용 안정을 달성해야 함
  - SOC 투자 확대를 통해 건설부문 투자 위축으로 인한 경제성장률 하락 압력 완화 및 건설부문 취업자 수 감소를 흡수할 필요가 있음
  - 단순히 일자리의 양적 확대가 아닌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고용의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
  - 실업 등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실업자 및 미취업자에 대한 일자리 탐색을 적극적으로 지원 **HRI**

2018년 한국 경제 전망 참여 연구진

【총괄】	주원	경제연구실장	(juwon@hri.co.kr, 02-2072-6235)
【연구조정】	홍준표	동향분석팀장	(jphong@hri.co.kr, 02-2072-6214)
	정민	연구위원	(chungm@hri.co.kr, 02-2072-6220)
【대외여건】	김수형	연구위원	(soohyung@hri.co.kr, 02-2072-6217)
【소비】	오준범	선임연구원	(jboh19@hri.co.kr, 02-2072-6247)
【투자】	백다미	선임연구원	(dm100@hri.co.kr, 02-2072-6239)
【대외거래】	김천구	연구위원	(ck1009@hri.co.kr, 02-2072-6211)
【고용·물가】	신유란	연구위원	(yooran0111@hri.co.kr, 02-2072-6240)